

엔저 영향, 일본기업들 국내로 유턴

- 엔저의 지속으로 일본기업들은 해외생산의 일부를 일본 국내로 이전시키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산체제 재검토
- 일본기업들의 유턴은 전기전자, 철강, 자동차, 조선 등으로 확대
- 일본기업들의 유턴 움직임은 환율변동 영향을 덜 받기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, 기업경쟁력 강화, 입지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

□ 소비지에서 생산을 기본으로 한 최적 생산체제

-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이 생산체제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
 - 캐논은 신제품생산을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로 대체할 방침
 - 파나소닉과 샤프도 일본 내수용 가전제품의 일부를 일본 국내 대체생산을 검토
-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지에
서의 현지생산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음
- 최근 일본기업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생산체제를 재검토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
보다 최적의 생산배분을 모색하고 있음

□ 일본기업의 유턴 사례

① 캐논

- 캐논은 향후 2년 내에 현재 40%의 국내생산비율을 50% 이상으로 올릴 방침임
 - 복합기, 카메라, 프린터 등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高 가격대를 중심으로 일본 국
내생산으로 전환하는 반면,

- 저가 양산품은 해외거점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해외공장을 폐쇄할 방침은 없다고 발표
- 일본 국내와 해외의 모든 생산거점을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라 기동적으로 생산배분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
- 해외생산 증가와 함께 현지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부품의 일부도 일본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방침임
-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핵심부품이나 범용품 이외의 중급부품 생산도 일본으로 이전, 일본에서 해외로 부품을 공급할 계획

② 파나소닉

- 파나소닉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백색가전의 일부 기종 생산을 일본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
- 전자레인지와 에어컨 등 중상위 기종의 해외생산비율이 높은 파나소닉의 가전 사업은 달러 당 1엔의 엔저 시 영업이익이 19억 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
- 2015년 3월에는 환율을 110엔으로 상정, 2015년 봄 이후에 판매하는 백색가전의 신제품 일부를 고베시와 시즈오카 현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

<일본 기업의 유턴 이유>

자동차 (닛산)	일본 국내공장의 코스트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, 생산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공장 등을 보완
전기·전자	파나소닉: 방어적인 생산 유턴이나 적극적인 대응은 아님
	샤프: 채산은 맞으나 이전이 용이한 것을 계산하여 국내생산을 검토
	미쓰비시전기 : 국내 유턴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, 글로벌사업의 지산지소 전략을 유지
철강	신일철주금: 일본 국내는 모 공장체제로 생산을 유지하면서 해외거점을 정비
	JFE스틸: 아시아지역의 공급과잉으로 엔저에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

③ 샤프·다이킨공업

- 샤프도 백색가전과 액정TV를 일본 국내생산으로 이전할 방침
 - 일본 국내로 생산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활용하고 새로운 설비투자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
- 다이킨공업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가전제품을 일본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

④ 조선·반도체 분야

- 엔저는 일본 국내생산이 기반이 중심인 조선, 반도체분야에도 기회로 작용
 - 미쓰이조선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, 항만크레인을 생산하는 일본 국내 생산거점에 약 170억 엔을 투자하여 설비를 증강하기로 결정
 - 엔저 등을 배경으로 수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투자 이유
- 반도체분야는 도시바와 소니가 일본 국내 생산을 확대
 - 소니는 화상 센서의 일본 국내 제2공장에 2015년까지 약 350억 엔을 투자하여, 생산능력을 10% 증강
 - 엔저로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어, 판매가 증가하면 투자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

⑤ 자동차

- 닛산자동차는 최근 환율을 감안하면 일본 국내 생산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, 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방침
 -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일본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

□ 시사점

- 엔저의 장기화 등을 배경으로 일본기업들의 국내 유턴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, 일본기업들의 유턴 움직임은 이제 시작 단계

-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 대응하는 사례가 많고, 공장 신설은 사례는 적음
- 엔저에 의존한 일본 국내 유턴은, 환율이 엔고로 반전되는 경우 공동화가 재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음
- 이는 기업행동이나 산업구조 변화가 환율변동에 민감한 경제는 그만큼 불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,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구조와 기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
- 한편, 입지경쟁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
-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동화방지는 물론,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임
- 규제 완화, 노동시장의 유연성,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의 창출기반 확대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1.9.)